거듭남 (II) - 성령

(요 3:3~8)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거듭남, 두 번째,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의 부분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단순히 상징적이고 예식의 차원에서만 그 의미를 가둬둘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끄집어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려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저 하늘에만 나의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을 우리 마음에 안고 이 세상을 기쁨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물'이 거듭남에 있어서 갖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사는 단계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지만, 결국 세례라든지 거듭남을 위한 기독교인의 자세, 결국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결단'이다. 어떤 결단이냐?
'공중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공중에 있는 내 마음이 기쁨을 얻지 않는 한 이제 공중 아래 있는 이 땅에서는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마음으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의 단계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용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디를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뭘 그렇게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다니 무슨 말이야, 그렇게 불가사의한 것을 내가 말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알아듣겠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알아들어요?
제가 짐작하건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말은 니고데모가 말하는 모태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어머니의 육체에서 태어난 나는, 그대로 사는 한 육체인데, 근데 그 육체로 살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피를 받아서 태어난 나, 이게 육으로 난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그렇지요?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역시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불변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지워지거나 희미해지거나 무효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육에서 육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이라는 말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주님도 육으로 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셨습니다. 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 상황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육으로 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주님도 거듭나셨습니까?
어머니인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것은 육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주님도 거듭나셨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아예 처음부터 거듭나신 상태, 우리가 거듭나야 될 그 상태에 계셨지요.
죄에 빠지신 적이 없는 분이 왜 거듭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이라고 말할 때는 뱃속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몸이 바로 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은 내 몸을 말합니다. 내 몸이 낳은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내 몸이 낳은 게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 내 몸이 낳은 것이 있는데 이게 육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속에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있지만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마음에 무엇이 플러스 되어야 인격이 됩니까?
'나'라는 의식이 플러스 돼야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인격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 태어난 아기가 '나'가 되어갑니다.
'나'라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이게 바로 '육으로 난 것' 할 때의 '것'이에요.
즉 바꿔 말하면, "육으로 난 '나'는 육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몸이 '나'를 낳습니까?
이 몸의 오감을 통해서 어머니의 존재를 봅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머니인 줄 모르지요.
젖먹이는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어? 저게 있네!' 하면서 '너', '당신'을 느끼면서 '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몸의 오감을 통해 어머니를 '너'로 느끼면서 '나'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이라고 말할 때 그 '육'은 내 몸을 말하고 -어머니의 몸에서부터 나온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오감을 통해 어머니나 아버지를 처음 보면서 '너'라고 느끼면서 '나'라는 의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 비로소 '나'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이에요.
즉, "육으로 인해서 생긴 '자아의식'은 육이요"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긴 자아의식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
다시 말하면,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겠다고 말하는 것은 너의 '나'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네 몸이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 현재 너의 '나'는 네 몸을 통해서 생긴 '나'라는 말이다, 몸을 통해 만나는 '너들'을 통해 생긴 '나'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를 처음 보면서 '나'가 아들이나 딸이 됩니다. 그러다가 형제를 몸으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동생이라는 자아의식이 생깁니다. 더 자라서 유치원에 갔습니다.
유치원에 가니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누구의 친구라고 하는 '나'의 내용이 더 플러스 되었습니다. 또 거기서 선생님을 봅니다. 선생님을 '너'로 하니까 나는 제자가 됩니다.
더 자라서 청년이 됐습니다. 이성이 생겼습니다. 이성이 '너'니까 나는 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너'니까 나는 남편이 됩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이 '너'니까 나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됩니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사장님이 계시니까 나는 직원이 됩니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의식 속에 계속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너'가 내용들을 주는 겁니다.
자식이라는 '너'가 '나'를 아빠가 되게 하고, 아내라는 '너'가 '나'를 남편이 되게 하고, 선생이라는 '너'가 '나'를 제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나'가 계속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말씀하신대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에서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였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나'라고 하는 내용의 통을 들여다보니까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너'를 몸을 통해 만나면서 '너'의 '나'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태승철이의 '나'는 이 몸을 통해서 그 '나'의 내용이 채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 몸을 통하여 생긴 '나'라는 자아의식은 육체로 접하는 이 세상에 의해서 마음이 완전히 장악되었으니까 너의 마음이 마음이지만 역시 육에 속한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몸 대신에 너의 '나'가 몸 대신 성령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너'로 해서 '나'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나를 증거한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은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한다.'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너'를 통하여 '나'로 태어난 것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바로 이 상태가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은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카리스마와 그 자신감과 그 권세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네가 대통령아버지를 '너'로 해서 생긴 '나'이냐?"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되냐?" "도대체 네가 그렇게 자신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시면서 오로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로 당신의 '나'가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아버지를 '너'로 해서 '나'가 되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걸리는 게 없고, 두려운 게 없고, 방해될 게 없고, 거리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나'를 만들어 주고 계시고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되어주셔서…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저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너'를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뭣 때문에 저렇게 자신감이 있지? 뭘 믿고 저렇게 할 소리 안 할 소리 가리지도 않고 막 해대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을 펑펑 쓰면 '아, 부잣집 아들이구나, 부자 아버지를 '너'로 해서 '나'라는 자아의식이 생긴 청년이로구나' 알 수 있겠지요.
또, 한 청년이 입이 헤벌쭉해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옆에 팔등신 아가씨를 애인으로 데리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팔등신의 아가씨를 '너'로 해서 '나'가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희색이 만면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웃는 것은 그 웃게끔 만드는 '너'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자신이 있으신 것은 그 자신 있게 만들어주는 '너'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볼 때.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던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분명해 집니다.
'태승철이 있다' 그러면 '나'라는 자아의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나'라는 자아의식의 통을 보면 나의 내용이 되는 수없이 많은 '너'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넣는 거예요. 다 죽여 버리는 겁니다.
태승철의 '나'를 형성하는 '너'가 모여 있는 자아의식의 통을 들여다보면,
어머니가 계시고, 아내가 있고, 제 아들이 있고, 그리고 형제들이 있고, 제가 상대하는 성도들이 계시고, 동료목사님들이 계시고, 수없이 많은 '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육체를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된 '너'들이에요.

그 '나'라는 통에 그 많은 '너'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모두 다 죽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나'가 없어진 거예요.
'나'를 '나' 되게 규정할 만한 게 없는 겁니다.
'나'라는 통에서 아들이 없어졌어요, 진짜 아들은 남아있지만 '나'라는 의식을 만들어주는 '나'라는 자아의식의 통 안에서 자식이 없어지니까 내가 아버지가 아닙니다.
부모가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자식이 아닙니다.
아내가 없어지니까 내가 남편이 아니고, 성도님이 없어지니까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료들이 없으니까 내가 친구도 아니에요. 다 없어졌어요.

욥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욥에게서 없어진 게 뭡니까?
자식이 없어졌어요,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재산이 없어지면서 '내가 부자다' 하는 의식이 싹 없어졌습니다.
친구 없어졌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얻은 명예 명망 모두 없어지고 사회적인 관계 다 떨어지고 아내도 도망가고, 건강도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놓았더라면, 욥 자체 -욥이라는 사람의 '나'-가 공중분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바로 자아의식 속에 있던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는 모든 '너'를 물을 부어서 다 죽여 버린 겁니다.
이젠 '나'가 공중에 떠버렸어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돼버렸으면 공중에 뜨고 말텐데,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붙은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하고 마음이 찔려서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합니다.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뭐예요? 물이에요.
‘나’를 규정하는 ‘나’의 내용이 되었던 ‘너’를 자아의식 속에서 다 죽이는 겁니다.
실제로 그 ‘너’들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자아의식 속에서 다 죽이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음은 있는데 자아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죽었습니다.
왜?, ‘너’가 다 없어졌으니까… 육체를 통해 관계했던 ‘너’가 다 없어져버렸으니까…
이때 성령의 품에 안깁니다.
성령의 품에 안겨서 성령께서 젖을 먹여 주실 때 우리가 처음 발견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아버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를 성령님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통하여 어머니를 맨 처음에 만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늘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 하늘아버지 옆에서 처음으로 ‘나’라는 의식이 생겨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라 이겁니다.
아버지가 생겨서 ‘나’라는 의식을 갖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나’라는 의식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아버지를 ‘너’로 보면 ‘나’는 하나님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보면 내가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옆의 있는 주님을 보면 “와, 저렇게 귀한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자아의식이 생겨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사랑 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개의 아들도 아니고,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빠도, 누구의 목사도, 누구의 설교하는 자도, 누구의 선생도, 누구의 동료도, 누구의 이웃도 아무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의식 하나를 딱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상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나’가 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땅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부모 앞으로, 자식 앞으로, 아내 앞으로, 남편 앞으로, 친구 앞으로, 교회 앞으로, 성도 앞으로, 목사님 앞으로, 다 보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삶이 다시 완전히 다르게 생긴 ‘나’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나’를 만들어주는 ‘너’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것들이 두 번째 ‘너’, 세 번째 ‘너’, 백 번째 ‘너’, 천 번째 ‘너’의 모든 관계를 다 지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택시기사분이 아내하고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막 욕이 저절로 나와요. ‘이 빌어먹을 세상!’ 그러면서 손님을 태우고 갑니다. 이때 손님들한테 웃는 얼굴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아내가 더 앞선 '너'입니다. 택시기사아저씨의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더 앞선 '너'예요. 그리고 손님은 더 뒤따라오는 '너'입니다.
즉, 이 남편이라는 자아의식이 택시기사라는 자아의식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앞서 있는 자아의식이 앞서 있는 '너'와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뒤따라오는 관계를 다 지배해 버립니다.
사업에 목숨을 다 걸고 사업이 첫 번째인 그런 사업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사업이 잘 안 되면, 사업이 '너'니까 그가 사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잘 안 돼버리면 동창회를 가도 기분이 나쁘고, 거래처에 가도 기분이 나쁘고, 아내를 만나도 기분이 나쁘고, 아내가 기쁨이 안 되는 이유는 사업이 첫 번째 '너'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앞선 '너'가 뒤따라오는 '너'와의 관계를 지배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와서 확인을 해봅니다.
'나'자신에게 지금 누가 첫 번째 '너'입니까? '나'를 규정하는…
하나님아버지가 첫 번째 '너'라면,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를 미루어 생각할 때 보좌에 앉아계신 온갖 보석의 빛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해서 '나'로 태어났을 때, 그 '나'의 마음에 생겨나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 감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렬할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첫 번째 '너'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 가정을 바라봅니다.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하나님아버지와 첫 번째로 관계하면서 생겼던 그 기쁨을 역으로 공격하고 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이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첫 번째 '너'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주님으로 모시고 '나'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역으로 침공해서 우울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첫 번째로 관계한 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로 망가질 수 있는 평강이 있겠느냐 이거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중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나 사도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고 사자 밥이 되고 불에 타죽어도 스테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나'가 되게 하는 '너'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완전히 그 사업이라고 하는 '너', 나를 사업가로

불리게 해주는 사업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마음에 생긴 걱정과 근심을 잔뜩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몇 번째 '너'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제 생각 같아서는 목회를 해보면 사회적으로 좀 유력한 사람들이 교인이 되는 것이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요, 그렇지만 그 기쁨을 쓱 눌러버리는 거죠.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지 자연인의 상태로 놔두면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교인이 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았으면, 니고데모 정도-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의 사람이 밤에 몰래 찾아왔으면, 어서 오시라고 반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 알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자신이 한 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표징이 있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왜 밤에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밤에 찾아옵니까?
바리새인들이 겨냥해서 나가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에게 왜 밤에 찾아와요?
니고데모 자신의 '나'를 이루어주는 수많은 이 세상의 '너'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면 손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대낮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가 되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옆의 바리새인들이 보면 '당신, 바리새인 그만 둬, 유대지도자 자격 없어, 어디 이렇게 출처도 불분명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추종하려고 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탁월한 '너'가 다 잘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온 겁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고, 예수님은 이미 아셨지요.
"그래 니고데모야, 네가 너의 육체를 매개로 해서 수없이 많은 '너'를 만나면서 니고데모 너 자신의 '나'가 형성이 되어있는데 그 '나'를 하나도 손상하고 싶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나를 밤에 찾아온 거구나, 나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지도자도 아니고 돈과 권력이 있지도 않고, 세상적으로는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고, 나를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해봐야 맨 세리와 창기들이고 어부들이고 형편없는 하층민들이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니고데모 '나'가 다시 하층민인 '너'와 동료가 되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지? 거듭나야 돼, 네가 네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맺은 수많은 '너'들이 다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보다 더 먼저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 그래요?
세리와 창기들이 자기 자신을 이루고 있는 '너'들 '내가 세리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을 '너'로 삼아서 '나'가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 자신인 '나'를 구성해주는 '너' 중에서 존귀한 것이 하나도 없

어요.
대통령의 아들, '나'를 존귀하게 해주는 '너'가 있어요, 팔등신 아내, 함께 다니면 내가 돋보이잖아요?
나를 존귀하게 해주는 '너'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너'가 죽어야 된다고 할 때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인 형편 자체가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자기 자신을 '나'로 되게 해주는 '너' 중에 아까운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쉽게 하나님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더 쉽게 물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나'를 규정해주는 존귀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자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너무 존귀한데, 많은 돈이 '너'가 되어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으니 어떻게 그 존귀한 돈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라는 자아의식을 만들어주는 그 돈을…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자식으로 온통 마음에 고민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불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하나님을 첫 번째 '너'로 모시면서 '나'가 된 사람이라면, 사도바울처럼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가 아니라 문제를 당한 자식을 하늘의 기쁨으로 불어넣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너'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기운을 받은 아내는 사업이 망해서 다 죽어가는 남편에게 하늘의 기운을 불어넣는 거지요.
같이 사업을 부둥켜안고 '아이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치면,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걱정으로 온 교회의 기도제목이 나라가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사십일 금식기도의 제목이 가정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거듭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나라에 문제가 생겨도 교회는 하나님을 첫 번째 '너'로 해서 지금 현재 하늘의 기운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식민지 하의 조국에서 살아가실 때 나라의 형편을 보지 않으시고 하늘을 전하기에만 급급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늘의 기운이 확장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라는 게,
하나님보다 먼저 '나'를 '나' 되게 한 이 세상에 육체를 통하여 맺게 되어 진 인연인 '너'와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똑같은 식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도 니고데모의 예수님 찾아온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 몸을 통하여 몸을 매개로 맺게 되는 인연으로 만난 '너'를 통해서 '나'가 된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육체성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육에 불과한 것이고, 이 마음이 성령을 매개로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승천하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하나님과 주님을 '너'로 해서 '나'가 되었을 때는 마음이지만 영에 의해서 완전히 침투되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육체를 따른다는 것과 영을 따른다는 것, 기독교인의 영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순과 이 부조리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형성된 '나'를 완성하려는 제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